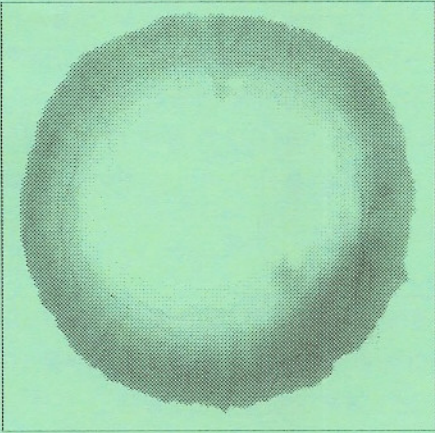


백삼위 안인성당

The 103 Saints Korean Catholic Center 2701 W. 237th St./ Torrance/ CA 90505
http://www.103skcc.org

연중 제6주일
제29권 12호(나해) 2009 · 2 · 15

[묵상]



“내가 하고자 하니 깨끗하게 되어라.”(마르 1,41)

살이 문드러지고 떨어져나가는 무서운 병
이 병은 나병, 한센병, 대풍창 등으로 불린다.
신라시대 광명공주에 관한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다.
그녀는 신라 제11대 조분왕의 공주였다.
어느 날 공주는 시녀들과 춘풍산에 소풍을 갔다.
오는 길에 알천냇물을 건너려는데
한 사람의 대풍창(나병) 병자가 목욕을 하면서
시녀들에게 자기 등을 좀 씻어달라고 청하였다.
문드러진 물결을 본 시녀들은 기겁을 하고 도망쳤다.
그런데 광명공주는 태연하게 병자의 등을 씻어 주었다.
그 순간 병자는 칠요(七曜)의 빛나는 신인(神人)이 되어
공주에게 후일 국모(國母)가 될 것을 예언하고는
홀연히 하늘로 사라졌다고 한다.
그녀는 예언대로 신라 제12대 미추왕의 왕비가 되었다.
오늘 예수님의 손길이 한 나병환자에게 닿았다.
“내가 하고자 하니 깨끗하게 되어라.”
사람의 원의와 하느님의 원의가 일치되는 순간이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남도 원하는 세상
하느님이 원하는 것을 사람도 원하는 그런 세상
나는 바로 그런 세상에 산다.(大)

미사

빈첸시오회 (어려운 이를 돕는 연락처) : (310)283-5879
연령회 (장례시 연락처) : (310)720-8240

수 요 일	저 녁 미 사	오후	7:30
목 요 일	아 침 미 사 (레지오) 저 녁 미 사	오전 오후	9:00 7:30
금 요 일	아 침 미 사	오전	8:30
토 요 일	성모신심 미사(첫토요일) 특전미사 (청년미사)	오전 오후	8:30 7:00
주 일	아 침 미 사 학생미사(영어) 낮 미사	오전 오전 오전	7:30 9:30 11:00

주간 행사표

화 요 일	신앙학교 제4단계(종강)	오후	7:30
수 요 일	면담의 날 (신부님, 수녀님) 거룩한 독서 (Lectio Divina) 레지오 마리아에 예비자 교리반	오후 오전 오후 오후	2:00 10:00 8:00 8:00
목 요 일	병자영성체 (1째주) 성 시 간 (첫목요일) 레지오 마리아에 성령 기도회 예비자 교리반	오전 저녁 미사후 오전 오후 오후	9:30 10:00 10:00 8:00 8:00
금 요 일	거룩한 독서 (Lectio Divina) M. E. Sharing (3째주) 울뜨레아 (4째주)	오전 오후 오후	9:30 7:00 8:00
토 요 일	유아세레 (4번째 토요일) 배론 청년모임 폐제기도모임 (2째주)	오후 오후 오후	6:00 5:00 8:30
주 일	병자 영성체 글로리아 성가대 1째주 - 구역장/반장 회의 2째주 - 모임의 날 ● 빈첸시오회 ● 오십회/안나회/양업회/성모회/자모회 대건부부회/원서부부회 3째주 - 행사의 날 4째주 - 사목회 가정의 날	오전 중 오전 오후 오전 오전 오후 오후 오후	9:00 1:00 9:00 1:00 1:00 1:00 1:00

- ※ 고해성사 : 평일미사, 토요특전미사 15분 전, 주일미사 20분 전
- ※ 혼배성사 : 6개월 전에 사무실에 필히 접수
- ※ 병자성사 긴급연락처 : 218-8432(신부님), 218-8282(수녀님)
- ※ 병자영성체 : 사무실로 신청

주임신부 : 박상대 마르코 (310)326-4350 Ext.103/106
전교수녀 : 구마리아네 (310)326-4350 Ext.102
평협회장 : 오세원 아타나시오 (310)327-8035
사 무 실 : (310)326-4350 Ext.100 Fax: (310)326-4360

토 요 특전 미사	(연)엄은섭 도로테오 (생)방수영 치릴로, 구 마리아네 수녀
주 일 낮 미사	(연)민병익 요한과 민선언 마리아, 정운 요셉, 안춘자, 이현호 요한, 변세연 대건안드레아, 이영자 마리아, 고준희 제임스, 김인영 베드로, 이상현 베드로, 김형진, 김두철 아브라함, 김경옥 테레사 (생)조혜정 헬레나, 이종원 베드로와 아녜스 가정, 이종민 요셉, 이정훈 안셀모와 도미니카, 대건 안드레아, 유미 율리아, 안재만 다니엘과 헤란 테레사 가정, 민형기 바오로, 김중환 요셉, 강진규, 최석원 클레멘스, 정셀리와 트레이시 가정, 송호민과 김나영 가정, 김피터와 김바비, 김시연 아가다, 김경중 요셉, 박홍룡 요셉, 김복순 벨라멧다, 글로리아 성가대, 구 마리아네 수녀, 이태석 요한 사제

오늘의 전례

제 1독서 레위기(Leviticus) 13,1-2.44-46

화답송 ○당신은 내 피난처이시니, 구원의 기쁨으로 나를 휘감아 주시리이다.

<전례사가 78, 연중 제6주일 나해>

○복되다, 그 죄 사하여지고, 그 허물 씻어진이여.
주께서 탓을 아니 돌리시고, 마음에 거짓이 없는
사람이여 복되도다.○

○내가 당신께 죄를 고백하고, 잘못을 아니 감추며
주님께 “내 죄악을 아뢰나이다.”하였을 제 내 죄의
잘못을 용서해주셨도다.○

○당신은 내 피난처, 곤경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구원의 기쁨으로 나를 휘감아 주시리다.○

○너희 의인들아,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라. 마음 바른 사람들아, 모두 다
춤추며 기뻐하라.○

제 2독서 코린토 1서(1 Corinthians) 10,31-11,1

복음 ○알렐루야.

환호송 ○우리 가운데에 큰 예언자가 나타났도다.
하느님께서 당신 백성을 찾아오셨도다.○

복음 마르코(Mark) 1,40-45

영성체송 그들은 싹떡 먹고 배불렀으니,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채워 주셨음이다. 주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저버리지 않으셨도다.

오늘의 성가

	청년미사(토요특전)	낮 미사
미사곡	51-58	33-42
입당	186	230
봉헌	259	269,195
성체	291	287,295
파견	392	194

24. 그리스도인의 가정생활

사람은 누구나 행복한 가정생활을 원한다. 가정을 떠나서
사람은 안정될 수 없고, 가족 간의 화합을 이루지 못하고서는
진정한 행복도 누릴 수 없다. 우리는 물질적으로는 풍요롭지
만 불화를 안고 살아가는 가정도 보고, 비록 어려운 형편이지
만 늘 웃음꽃을 피우는 가정도 본다. 오늘날 가정은 여러 가지
이유로 그 본질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참된 친교와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가족 사이에 인격적 친교와 사랑을 발견
할 수 없다면 아무리 부모와 자녀가 함께 사는 공동체라고 하
더라도 ‘가정’이라는 말을 붙이기 어려울 것이다. 이와 같이 가
정을 꾸려 나가는 데에도 차원 높은 가치관과 올바른 자세가
필요하다.

☞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서로 순종하십시오. 아내는
주님께 순종하듯이 남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남편은 아내의 머리
입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이시고 그 몸의 구원자이신
것과 같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듯이, 아내도 모든 일에서
남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남편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
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당신 자신을 바치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십
시오.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교회를 말씀과 더불어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하셔서 거룩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교
회를 티나 주름 같은 것 없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당신 앞에 서게 하
시며, 거룩하고 흠 없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남편도 이렇게 아내
를 제 몸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자기 몸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
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하시는 것처럼 오히려 자기 몸을 가꾸고
보살핍니다. 우리는 그분 몸의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
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됩니다.’ 이는 큰
신비입니다.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두고 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도 저마다 자기 아내를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고, 아내도 남편
을 존경해야 합니다. 자녀 여러분, 주님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십시
오. 그것이 옳은 일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이는 약
속이 딸린 첫 계명입니다. ‘네가 잘되고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하
신 약속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여러분, 자녀들을 성나게 하지 말고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기르십시오.”(에페 5,21-6,4)

▶ 가정의 목적

가정은 모든 인간관계와 활동의 기초이며 중심이다. 가정의
목적은 서로 사랑하는 남녀가 한 몸을 이루고, 그 부부 사랑의
결실로 얻은 자녀를 참 그리스도인으로 기르며, 일치와 나눔
으로써 인간의 완성을 추구하는 것이다. 따라서 가정은 사랑
과 평화, 정의와 질서가 실천되는 장소다. 특히 하느님의 자녀
로 다시 태어난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사랑의 근원이신 하느님
께서 그 중심이 되신다.

(◆CBCK 제공 - 계속)

편견과 이기적인 판단 행위가 사라져야만!

'나병이란 사회의 근간을 흔들어 파괴시킬 뿐만 아니라 인간성 자체를 파멸시키는 가장 심각한 질병으로서 죄와 악의 극치를 보여주는 고약한 병이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들은 사회로부터 철저하게 격리되어야만 했을 뿐만 아니라 그가 속한 공동체로부터도 추방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사실상 유대인들은 나병을 죄와 악의 결과로 인식함으로써 나병이라는 육체적인 질병에 윤리적이고 종교적인 의미를 덧칠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나병 환자들은 공동체가 거행하는 경신례에 절대적으로 참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나병 환자들은 공동체 뿐만 아니라 하느님과과의 관계도 단절한 채 살아야 하는 고통을 숙명처럼 받아들여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나병 환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와 “스승님께서는 하고자 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며 도움을 청합니다. 나병 환자의 외침은 예수님께 대한 전적인 신뢰의 표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믿음을 갖고 간청하는 나병 환자의 애절한 소망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서는 치유된 그에게 몸이 깨끗해 진 것을 사제에게 가서 확인 받으라고 명령하십니다.

나병을 낫게 해주셨으면 그것으로 끝난 것이지 무슨 이유로 그러한 명령을 내리셨을까요? 예수님께서서는 기적이라는 것이 영적인 구원에 대한 열망은 제쳐놓고 세속적인 기대감만을 가중시킬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그 기적을 통해서 사실상 중대한 의미

를 전달해주고자 하셨던 것이지요.

마르코 복음서 저자는 기적의 사실을 널리 퍼뜨리지 말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이 자리에 수록해 놓음으로써 <그런 놀라운 기적의 행위를 보여준 사람이 과연 누구인가?> 라는 사실에 관심을 모아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 복음을 읽는 모든 시대의 독자들은 분명한 응답을 하도록 요구받고 있는 것입니다.

질병과 고통이 없는 세상은 없을까? 그러한 바람을 품지 않을 수 없을 만큼 실질적으로 우리는 여러 가지 질병과 고통을 안고 살아갑니다. 우리 자신들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는 여러 가지 질병과 고통으로 인해 삶을 위협받고 있는 이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누가 그들의 고통을 어루만져 줄 수 있겠습니까?

그 옛날 나병 환자를 따뜻하게 맞아주시며 치유해주셨던 예수님께서서는 고통과 시련의 일상 속에서 허덕이는 우리 모두를 오늘도 크신 사랑으로 어루만져 주십니다. 그러기에 믿는 모든 이들은 이 순간에도 질병과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이웃들에게 따뜻한 사랑을 나누어 주라는 예수님의 요청을 새겨들어야 할 것입니다.

편협한 사고와 이기적인 욕심 그리고 자의적인 판단에 길들여져 있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자화상일진대 어찌 우리 사회가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의 모습을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악은 질병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야 할 이웃에 대한 성급하고도 이기적인 판단에서 기인하는 것이 아닐까요?

◆안병철 베드로 신부 | 서울대교구 사무처장

이번주 전례 봉사자

이번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최태훈 아오스딩	신덕례 테레사	신중철 아브라함
제1독서자	김정은 젬마	최영신 프란치스코	이영석 크리스토폴
제2독서자	민슬기 로사리아	김금자 테레사	박희자 마리아
제물봉헌자			토런스 서 2반

다음주 전례 봉사자

다음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이호미 엘리사벳	신덕례 테레사	정미영 미카엘라
제1독서자	박진수 스테파노	김교복 레오	이민상 요한
제2독서자	방영화 요세피나	황지영 안젤라	권순길 체칠리아
제물봉헌자			토런스 남 1,3반

◆ 교무금은 제 달에, 주일헌금은 정성껏 봉헌합니다.

◆ 미사시간에 늦지 말고, 일찍 와서 묵주기도를 바칩시다.

十 사순시기 十

◆ 재의 수요일

2월25일은 사순시기가 시작되는 재의 수요일입니다.
경건한 마음가짐으로 미사와 재의 예식에 참석합니다.
(금식제와 금육제를 지켜야 합니다)

- 미사 : 오전 8시30분, 오후 7시30분

◆ 성지 가지 회수

'재의 수요일'에는 재를 머리에 얹는 예식을 거행합니다.
이때 쓰이는 재는 지난해 나뉘드린 성지 가지를 태워서
사용합니다. 각 가정에 보관하고 있는 성지 가지를 2월
22일(주일)까지 성당으로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 수도원 건립을 위한 모금 방문

- 일시 : 2월14일 토요일전미사와 15일 주일미사
- 장소 : 성삼성교회, 뉴멕시코 보스퀘 소재
- 김보경 예수의 마리아 알로이시오 수녀
- 신자 여러분의 사랑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 2월16일 프레지던트 데이 연방공휴일에 따라 오늘 주일
(15일) 주일학교/한국학교 수업 없습니다.

◆ 사제관 옆 창고 정리에 동참해주세요.

- 일시 : 오늘 주일(15일) 오후 1시
- 시설관리부와 양업회 회원들은 빠짐없이 참여해주시고.

◆ 건진성사 신청 접수 중

- 오는 4월26일(주일) 성인신자들을 대상으로 건진성사가
예정되어있습니다. 건진받기를 원하는 세례신자들은 사무실
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주시고.
- 주례 : Bishop Alexander Salazar (San Pedro Region)
- 문의 : 종교교육분과 최재은 베드로 위원장 ☎694-4585

◆ 성인 복사단 모집

교회 전례예식에서 사제를 도와 의식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보좌하는 역할을 하는 성인 복사단을 모집합니다.

- 봉사 문의 : 윤희동 안토니오 ☎(310)365-7871

◆ 백삼위 M.E. Sharing

- 일시 : 2월19일(목) 오후 7시
- 장소 : 서성용 베드로 ♥ 용숙 에스텔 자택 ☎532-3242

◆ 성모회 김치 판매

신선한 점보 슈림프를 갈아 맛을 낸 인기만점 성모회표 김치를
판매합니다.

- 일시 : 2월21일 토요일전 미사 후~22일 주일까지
- 빈 김치병이 필요합니다. 늦어도 2월19일(목)까지 성당으
로 가져다 주세요.

◆ 2월24일(화) 고준희 제임스 실종1주기 추모

- Memorial Bench Opening : 24일(화) 오후 5시 실종현장
- 추모미사 : 24일(화) 오후 6시30분 고규재 체첼리아 댁
☎(310)377-6328
- 친구를 구하고 의로운 죽음을 한 고준희 제임스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 기도합니다.

◆ 배론 청년회 사순피정

- 일시 : 3월13일(금)~3월15일(주일)
- 장소 : 테미쿨라 꽃동네
- 주제 : "주님 말씀하십시오. 당신 종이 듣고 있습니다."
- 신청 : 3월8일까지. ☎ : 최 아오스당 청년회장 508-2123

◆ 캔푸드(Can Food) 통비치 무숙자 셀터에 전달

지난 연말 주일학교가 수집한 불우이웃돕기 캔푸드는 사회복
지분과를 통해 통비치 무숙자 셀터에 잘 전달했습니다. 협조해
주신 교우들께 감사드립니다.

◆ 친교자리(주일 점심나누기) 봉사담당 소공동체

- 2월15일(주일) : 토런스 동1반(카레라이스 \$3)
- 2월22일(주일) : P.V. 1반(불고기덮밥 \$3)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교무금	강덕희	강숙경	권순봉	권오상	권태만	금영도
	김광일	김교복	김기정	김민석	김병조	김선영
	김성일	김성현	김양금	김영경	김 옥	김윤진
	김정렬	나경흠	문충한	박상준	박순자	박영룡
	박인식	송기철	신대철	신승성	신중철	신현화
	안태갑	엄혜은	오세원	오수인	오 진	유근우
	유희연	윤화경	이경용	이귀분	이숙화	이영희
	이일길	이태옥	익 명	임연조	장수창	장영우
	장영진	정규숙	정병훈	정훈모	최미열	최상만
	최원석	최의수	최이원	최태훈	한혜숙	박제이콥
	합계 : \$5,245					
	미사헌금 : \$3,048.75					

성전헌금	강숙경	권순봉	권오상	권태만	금영도	김광일
	김교복	김기정	김민석	김병조	김선영	김성일
	김성현	김양금	김 옥	김윤진	나경흠	문충한
	박상준	박순자	박영룡	박인식	송기철	신대철
	신승성	안태갑	엄혜은	오세원	오수인	유근우
	유희연	윤화경	이경용	이상석	이숙화	이영희
	이태옥	익 명	장수창	장영우	장영진	정규숙
	정훈모	최미열	최상만	최원석	최의수	최이원
	한혜숙	박제이콥				
	합계 : \$3,926.34					
	감사헌금 : 박제이콥 유지숙 오석만 & 스텔라					

◆ 주일학교 / 한국학교 소식 ◆

◆ 주일학교 사순피정 신청

- 주제 : Heaven on Earth
- 일시 : 3월13일(금)~15일(주일), 금요일 오후4시 성당 출발, 일요일 오후 5시30분 도착예정 (버스로 함께 이동)
- 장소 : 테미쿨라 꽃동네 피정센터
- 참가비 : \$40(3월2일 이후 \$50)
- 대상 : 7학년~12학년(선착순 40명)
- 준비물: Bible, Rosary, Sleeping bag, Pillow, Towels, Toiletries, Extra shoes, Warm jacket, 주일미사 헌금
- 신청 : 3월8일(주일)까지 주일학교 교사실, 사무실
- 문의 : 강 아네스 교장 ☎(310)780-0369

◆ 견진성사

- 대상 : 10~12학년
- 리허설 : 5월8일(금) 오후 7시30분~9시
- Reflection : 5월 14일(목) 오후 7시
- 견진성사 일시 : 5월15일(금) 오후 7시
(견진대상자와 대부분은 3일간 모두 참석해야 합니다.)
- 주례 : Sartoris 주교 * 장소 : St. Margaret Mary 본당
- 신청 : 3월29일(주일)까지 주일학교 교사실, 사무실
- 신청비 : \$10

◆ 백삼위 한국학교 2학기 등록 중

- 첫째 자녀 \$150, 둘째 \$140, 셋째 \$130, 넷째 자녀는 무료입니다.
- 등록 장소 : 한국학교 교사실

남가주 소식

◆ 성 골롬반 청소년 선교회 제5차 선교기금 마련 골프대회

- 일시 : 3월20일(금) 낮 12시30분(Shotgun Start)
- 장소 : 캘리포니아 컨트리 클럽(CCC)
1509 S. Workman Rd. Whittier, CA 90601
- 참가비 : \$100
- 문의 : 정율리아 ☎(310)404-1607, (213)389-4612

◆ 남가주 한인 가톨릭 미술가협회 새회원 모집

- 지도 : 한상만 토마스 신부
- 신청 : 김원실 메리디나 회장 ☎(714)329-0764

구인 ☎ 두살난 남자아기 돌봐주실 분을 찾습니다. 월~금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901)268-7909 정로사

이번 주 단체 모임

행사의 날	
-------	--

다음 주 단체 모임

2월 사목상임위원회	오후 1시
------------	-------

소공동체부장 차장 차장		권순길 세실리아 (310)365-2183 박혜경 레나타 (310)808-5005 권병연 리디아 (310)938-3255	
구역/장	반	반장	장소/날짜
토런스 동 유현자 안나 320-3697	1	남명자 데레사 328-0847	동구역 전체 합동반모임 2/15(주일) 오후 4시, 성당
	2	신중철 아브라함 619-4343	동구역 전체 합동반모임 2/15(주일) 오후 4시, 성당
	3	한길선레 스펠라스티카 218-7824	동구역 전체 합동반모임 2/15(주일) 오후 4시, 성당
	4	정종미 클라라 373-1237	동구역 전체 합동반모임 2/15(주일) 오후 4시, 성당
토런스 서 김숙희 오틀리아 782-8549	1	박정애 데레사 618-8499	김대우 비오 378-8763 2/14(토) 오후 7시
	2	이크리스 아가톤 619-7763	윤바오로 & 실비아 540-6925 2/21(토) 오후 6시
	3	이호미 엘리사벳 543-4953	김미성 에스텔 343-3273 2/10(화) 오전 10시30분
	4	이은록 요셉 371-4645	이은록 요셉 371-4645
토런스 남 김찌니 클라라 612-8840	1	엄영숙 마리아 373-5662	신성주 엘리사벳 891-1837 2/20(금) 오후 7시30분
	2	박희자 마리아 325-6982	박파르시아 325-6982 2/11(수) 오전 10시30분, 성당
	3	강은진 켈마 214-2290	강은진 켈마 214-2290 2/13(금) 오후 7시30분, 성당
	4	이정훈 안셀모 908-8823	이정훈 안셀모 908-8823
토런스 북 이복임 엘리사벳 516-0818	1/2	박정희 마리아 800-3709	정하상바오로 & 율리아 768-1488 2/6(금) 오후 7시
	3	대건회 : 거주지 역만으로 배속	대건회 반모임이었던 토런스 북3반은 거주지역만으로 배속됩니다.
하버 카슨 박혜경 레나타 808-5005	1	정정숙 율리아 365-4722	정정숙 율리아 365-4722 2/13(금) 오후 7시
	2	박혜경 레나타 808-5005	박중열 토마스아퀴나스 784-0460 2/14(토) 오후 7시
	3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장숙환 수산나 518-1736 2/5(목)
P. V. 이정숙 스테파니 755-8360	1	최길숙 요세피나 997-9006	김은 안나 541-5429 2/6(금) 오후 7시
	2	김숙희 유소사 544-4807	금영도 베드로 541-4760 2/13(금) 오후 7시
	3	윤은경 미카엘라 265-0856	한애경 율리아나 541-5370 2/13(금) 오후 7시
	4	송기순 엘리사벳 265-0495	송기순 엘리사벳 265-0495 2/12(목) 오전 10시 성당

◇ **바오로 서간 필사 순서** : ① 테살로니카 1서, ② 테살로니카 2서, ③ 코린토 1서, ④ 코린토 2서, ⑤ 갈라티아서, ⑥ 필리피서, ⑦ 필레몬서, ⑧ 로마서, ⑨ 에페소서, ⑩ 콜로새서, ⑪ 티모테오 1서, ⑫ 티모테오 2서, ⑬ 티토서.

◎ 갈라티아서 - 복음과 엮이가는 갈라티아 교회에 대한 질책과 경고 (1)

◇ **갈라티아** : 소아시아(오늘날 터키)에 위치하여 있으며, 사도 바오로 시대에 로마 제국의 속주로서 수도는 안키라(오늘날 터키 수도 앙카라)였다. 갈라티아는 크게 북부와 남부로 나뉜다. 북부 갈라티아는 주로 켈트족인 갈라티아 사람들(‘갈라티아’라는 말이 ‘켈트’에서 유래)이 지내는 지역으로 안키라를 중심으로 소아시아 중앙 중북부 지역을 가리켰고, 남부 갈라티아는 나중에 합병된 피시디아, 프리기아, 팜필리아 지역으로 안티오키아를 비롯해 이코니온, 리스트라, 데르베 같은 도시들이 여기에 속했다. 바오로 사도는 1차 선교여행 때(45-49년쯤)에 남부 갈라티아 지방 도시들에서 복음을 전했다. 그리고 2차 선교여행 때(50-52년쯤)에도 데르베와 리스트라 등 1차 선교지역들을 방문하면서 북부 갈라티아를 횡단해 마케도니아로 향했다.(사도 16,1-10). 또 3차 선교여행 때(53-58년쯤)는 북부 갈라티아 지방에 복음을 전했다.

◇ **집필 배경** : 우선 갈라티아서의 수신자가 누구인지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코린토서는 코린토 교회, 테살로니카서는 테살로니카 교회라고 서간의 수신인을 분명히 밝히지만, 갈라티아서는 특정한 한 교회를 지칭하지 않고 ‘갈라티아의 여러 교회’(1,2)라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러 교회란 표현 때문에 갈라티아서의 수신처가 안티오키아와 이코니온, 리스트라, 데르베 같은 갈라티아 남부 도시들에 세워진 교회들이라는 주장이 한때 있었다. 하지만 갈라티아서의 수신인은 남부 지역이 아니라 안키라를 포함하는 북부 갈라티아 사람들이라는 것이 전통적 견해였고, 오늘날에는 학자들 대부분이 이 견해를 따른다. 따라서 갈라티아서의 수신인은 바오로 사도가 2차 선교여행 때에 복음을 전하고 3차 선교여행 때도 방문한 갈라티아 북부의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킨다고 보는 게 좋을 것이다.

이 갈라티아 사람들에게 바오로 사도가 편지를 쓰게 된 배경은 무엇일까? 무엇보다도 갈라티아 사람들이 바오로가 전한 복음 메시지와는 다른 가르침에 빠져들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바오로는 “그리스도의 은총 안에서 여러분을 불러 주신 분을 여러분이 그토록 빨리 버리고 다른 복음으로 돌아서다니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1,6)하고 질타한다. 다른 가르침이란 율법 준수를 강조하는 이들의 가르침을 말한다. 바오로가 전한 복음의 핵심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바오로가 떠난 뒤에 다른 이들이 왔다. 이들은 아마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었을 것임이다. 이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면서도 유대교의 율법을 지킬 것을 강조하면서 할례를 강요했고, 적지 않은 갈라티아 신자들이 거기에 혹했을 것이다. 이런 소식을 들은 바오로는 이들의 그릇된 주장을 논박하면서 갈라티아의 그리스도인들을 바로 잡고자 편지를 써 보낸 것이다. 그래서 이 서간에는 상당히 격한 어조가 곳곳에 보인다. “저주를 받아 마땅하다.”(1,8,9)거나 “아, 어리석은 갈라티아 사람들이여! … 누가 여러분을 호렷단 말입니까?”(3,1) 같은 표현들이 그렇다. 다른 한편, 바오로는 갈라티아서에서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이야기하면서 육에 따른 삶과 성령에 따른 삶을 대비시킨다. 이것은 갈라티아 신자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면서도 당시의 그릇된 이교도적 풍습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해 자유를 빙자해 도덕적 방종에 빠져들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갈라티아 사람들 사이에서 보이는 이런 도덕적 일탈 역시 바오로 사도가 이 서간을 쓰게 된 또 다른 배경이었던 것이다.

◇ **집필 장소와 시기** : 앞서서도 언급했듯이 바오로 사도는 2차 선교여행과 3차 선교여행 때에 각각 북부 갈라티아를 방문했다. 그리고 3차 선교여행 때는 갈라티아를 거쳐 에페소에서 약 3년간 체류하는데, 이때에 갈라티아서를 썼을 가능성이 높다. 만약에 3차 선교여행이 끝나고 썼다면 집필 시기는 적어도 58년 이후여야 한다. 그런데 58년쯤에 집필된 것으로 추정되는 로마서에 나오는 바오로 신학은 갈라티아서에 나오는 것에 비해 진일보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갈라티아서는 적어도 로마서보다 이전에 쓰였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집필 시기는 54-55년 또는 55-56년으로 추정된다.

[◆평화신문 / 이창훈 기자]